

## 제24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1 제24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2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미래에셋 박현주, 10년 연속 배당금 기부 누적 기부액 250억원

‘샐러리맨 신화의 주역’, ‘자수성가형 금융인’, ‘최연소 증권사 지점장 출신 CEO’ 등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수식하는 말은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목을 끄는 건 그가 나눔을 통해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박현주 회장은 2010년부터 미래에셋자산운용 배당금을 기부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미래에셋캐피탈 배당금까지 더해져 17억원을 기부했으며, 10년간 기부금은 총 250억원에 달한다. 기부금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통해 장학생 육성 및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한다.

미래에셋은 금융권을 넘어 국내에서 장학생을 많이 배출하기로 정평이 났다. 2007년부터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통해 선발하는 해외 교환 장학생 프로그램은 해외 연수를 떠나는 대학생들의 필수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했다. 매년 700명씩 선발해 학비와 체재비를 지

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 교환학생 장학사업이다.

해외 교환 장학생 프로그램은 한국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넓은 세계에서 지식 함양 및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에셋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부터 중국, 인도, 콜롬비아 등 현재까지 5천817명의 대학생이 전 세계 50여개국으로 파견됐다.

미래에셋은 2000년 재단 설립 후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라는 기치 아래 해외 교환 장학생을 비롯해 국내 장학생 3천505명,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122명을 포함 총 9천573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아이 스쿨 투어’와 ‘우리아이 경제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에셋 경제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만도 29만명이 넘는다. 이렇게 경제 및 진로 교육, 중국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 글로벌 문화체험 등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포함, 20년간 누적 참가자 수는 31만명(31만5천199명)을 웃돈다.

특히 장학생 중 다수는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진행하는 ‘청소년 멘토링 캠프’, ‘집짓기 봉사활동’, ‘연탄나눔’ 등에도 참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미래에셋 임직원들은 급여 1% 기부 운동인 ‘사랑합니다’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에셋 박현주재단은 ‘결식아동 및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